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2014 정기회원총회



◆ 때: 2014년 1월 23일(목) 오후 7:30

◆ 곳: 함께하는 거창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께하는 거창

670-80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길 74

전 화 055-942-1117

팩 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 1월 23일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 회 순 서

식전 행사 - 2013년을 돌아보며

- I부 -

사 회 : 최성식 사무국장

- 1.개회선언
- 2.공동대표 인사말
- 3.감사보고
- 4.2013년 결산보고
- 5.2013년 사업보고
- 6.2014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 7.2014년 예산(안) 보고, 의결
- 8.기타 안건 토의
- 9.폐회선언

- II부 -

내빈인사 및 덕담나누기

상임대표 인사말

아쉽고 고마웠던 2013년이었습니다.



상임대표 이성호

어김없이 **함께하는거창** 회원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13년은 오랫동안 **함께하는거창** 상임대표로 수고하셨던 신용균님과 함께 이상재님, 권문상님이 대표직을 사임하는 바람에 세 명의 대표가 새로 선임되어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시민운동을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해보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미션팀이 꾸려졌고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영입하여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라는 여론을 들어서 **함께하는거창**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던 시도가 계속 터지는 현안들과 우리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중단된 것이 참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함께아는계장**으로 새롭게 출범할 때부터 상근 실무자로서 10년 가까이 개인의 삶을 희생하며 지역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최성식 사무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만 던져놓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지 않고 너무 우리가 요구만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표로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최사무국장의 앞길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하주 사무차장이 뒤를 이어 상근 실무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라는 말처럼 새로 온 실무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1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은 지역에 큰 현안이 있었습니다. 위천천 가동보 설치 사건입니다. 군수의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행정스타일의 희생양이 된 것이 위천천 가동보입니다. 대책위가 꾸려져서 투쟁한 결과 일단 공사 중지 상태에 있지만 군수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위천천을 생태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알찬 성과가 있다면 작은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졌다는 점입니다.

푸른숲은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는 모임으로 회원님들을 하나로 묶는 큰 역할을 감당했으며 작은권리찾기는 사소한 것 같으나 행정의 무성의로 불편을 겪는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운동을 거창군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이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이로 인해 **함께아는계장**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작은권리찾기모임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원총회는 **함께아는계장**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활동을 결산하고 다음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결정하며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회원총회가 회원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 사 보 고

감사 이상황

회사, 노동조합 등 다양한 감사 업무를 접해보았지만
이번처럼 깨끗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자그마한 시골마을 시민단체가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살아있는 민중의 힘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탄이 감사 내내 흘러 나왔습니다.

함께하는게장

회원분들의 소리 없는 도움과 참여로
계속적인 연대의 행운이 계속되길
기원드립니다.

2013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3년 1월 29일 오후 7:30

2. 회의장소 : 함께하는거창

3. 회의안건 : -.감사보고
-2012년 결산보고
-2012년 사업보고
-임원개선
-2013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2013년 예산(안) 보고, 의결
-정관개정, 기타 토의

4. 출석의원 :150명 중 38명(출석 30명, 위임 8명)

5. 회의내용

- 이상재 공동대표 2013년 정기회원총회 개최를 선언하다.
- 최성식 사무국장 출석 30명, 위임 8명 모두 38명이 참석했음을 보고하다.
- 정연탁 감사가 2012년 회계 및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고, 감사보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다.
- 최성식 사무국장 2012년 결산보고, 사업보고를 하고, 이상재 공동대표 참석자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상재 공동대표 임원개선을 위한 임시의장 선출 건을 상정하다.
- 이성호 회원 김기오 회원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다. 다른 추천이 없어 참가자 전원 박수로 김기오 회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다.
- 김기오 임시의장이 공동대표 선출 건을 상정하다.
- 권문상 회원이 이성호 회원을 추천하고, 김하주 회원이 이점도 회원을 추천하고, 최광재 회원이 백철우 회원을 추천하다.

- 김기오 임시의장 추천된 회원들에게 정견 발표를 요청하다.
- 이성호, 백철우, 이점도 회원 순으로 정견을 발표하다.
- 김기오 임시의장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방식 결정 건을 상정하다.
- 이성열 회원이 공동대표 후보 3인을 박수로 추대할 것을 제안, 참석자 전원 다른 의견이 없어 공동대표 후보 3인을 박수로 선출하다.
- 김기오 임시의장 감사 선임 건을 상정하다.
- 최성식 회원 이상황 회원을 추천하고, 김하주 회원이 정연탁 회원을 추천하다.
- 참가자 전원 박수로 이상황, 정연탁 회원을 감사로 선출하다.
- 김기오 임시의장 공동대표 3인 중 이성호 공동대표에게 의사진행을 인계하다.
- 이성호 공동대표 정회를 선포하다.
- 이성호 공동대표 속개를 선포하고, 공동대표 3인 중 상임대표에 이성호 공동대표를 선임되었음을 발표하고, 최성식 사무국장 선임 승인 건을 상정하다.
- 이성호 공동대표 사무국장 선임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성호 공동대표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상정하고, 참석자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성호 공동대표 정관개정 및 기타 안건에 대한 토론 건을 상정하다.
- 이상재 회원 정관 제36조 중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의 정당가입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다.
- 이성호 공동대표 정관 “제36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성호 공동대표 폐회를 선언하다.

2013년 1월 29일



2013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 2013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현 금	4,395,929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10,729,065	퇴직적립금	10,729,065
임차보증금	21,500,000	자 본 금	25,895,929
합 계	36,624,994	합 계	36,624,994

22012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사무국)	46,800,625	일반회계(사무국)	42,404,696	일반회계(사무국)	4,395,929
장학사업특별회계	22,980,173	장학사업특별회계	22,001,160	장학사업특별회계	979,013
합 계	69,780,798	합 계	64,405,856	합 계	5,374,942

3장학사업 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22,500,000	장 학 금	22,000,000
이자수익	1,177	부대비용	1,000
전년도 이월금	478,996	세금과 공과금	160
		현 금	979,013
수입합계	22,980,173	지출합계	22,98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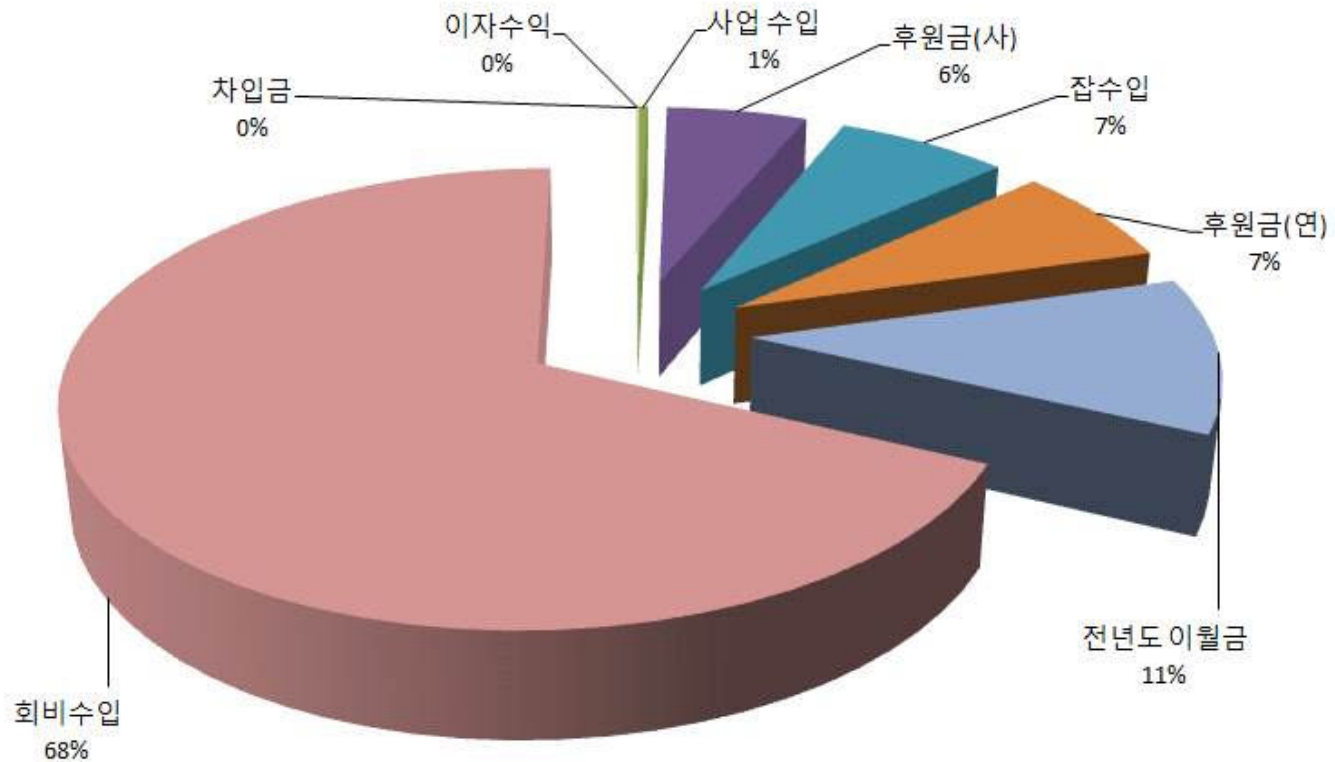
4일반회계(사무국)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31,880,000	인 건 비	급 여	26,366,000	
	후원금	2,730,000		상여금	300,000	
	후원금(연구소)	3,380,000		퇴직적립금	1,100,000	
기타수입	사업 수입	193,000		복리후생비	2,062,540	
	이자수익	6,548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차입금	0		기기구입비	60,000	
	잡수입	3,335,507		사무용품비	62,400	
	전년도 이월금	5,275,570		세금과 공과금	940	
				소모품비	45,230	
				수선비	30,000	
				수도광열비	1,179,460	
				통신비	392,896	
				사 업 비	도서인쇄비	288,000
					발 송 비	665,730
					분 담 금	1,120,000
					사 업 비	3,374,040
					회원활동비	1,079,000
					회 의 비	661,060
			출장연수비		0	
			사업외비용	잡 비	17,400	
				차입금 상환	0	
				현 금	4,395,929	
수입합계		46,800,625	지출합계		46,800,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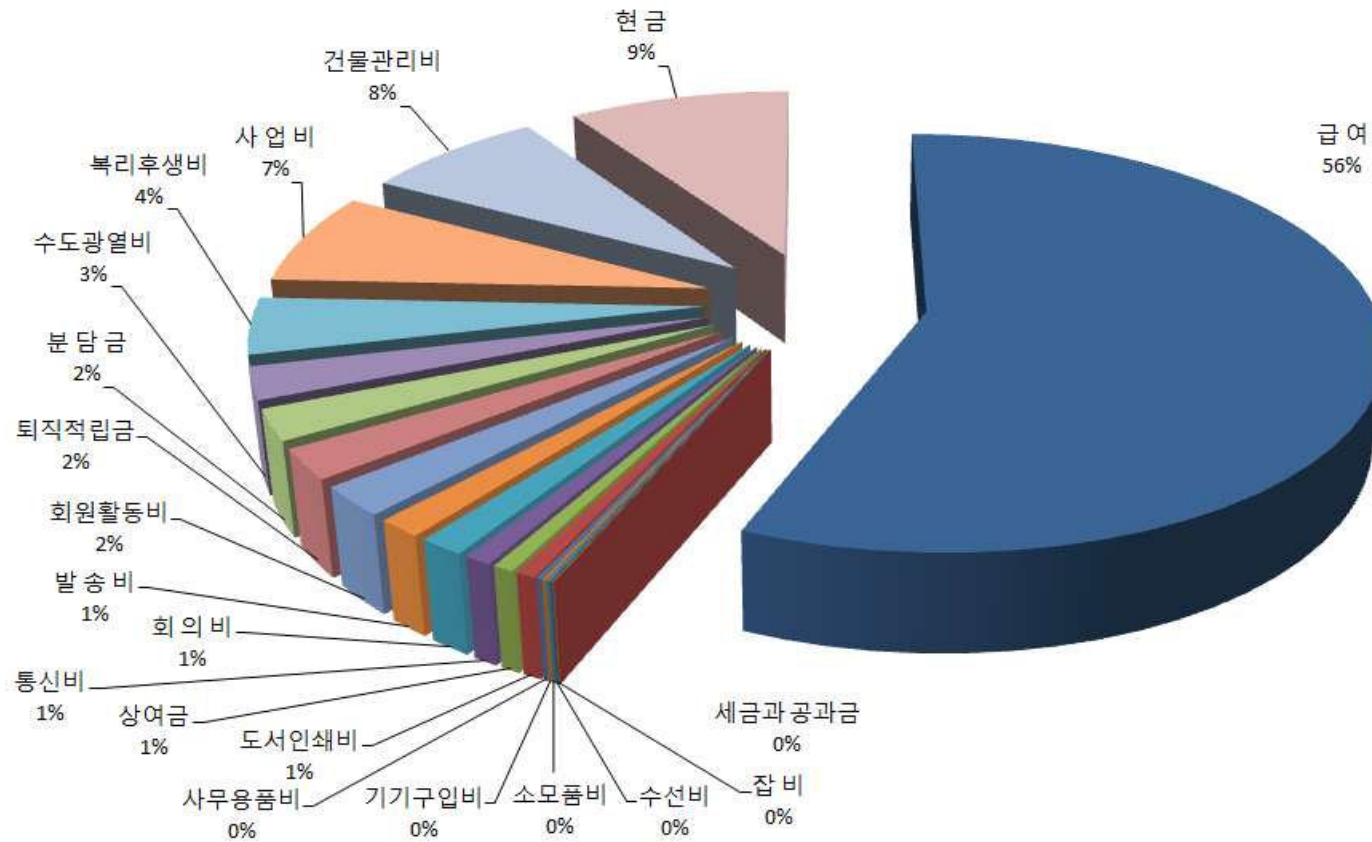
5. 계정과목 설명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사무실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금

2013년 일반회계 수입 현황



2013 일반회계 지출 현황



● 자산변동 현황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
현 금	5,276,337 (14.5%)	4,395,929 (12%)	-880,408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9,629,065 (26.4%)	10,729,065 (29.3%)	+1,100,000	퇴직적립금	9,629,065 (26.4%)	10,729,065 (29.3%)	+1,100,000
임대차보증금	21,500,000 (59.1%)	21,500,000 (58.7%)	-	자 본 금	26,776,337 (73.6%)	25,895,929 (70.7%)	-880,408
합 계	36,405,402 (100%)	36,624,994 (100%)	+219,592	합 계	36,405,402 (100%)	36,624,994 (100%)	+219,592

·현금:12월 31일 기준 보유한 현금.

·적금(퇴직적립금):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1,100,000원 증가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변동 없습니다.

·퇴직적립금:왼쪽 설명 참고하세요.

·자본금:함께하는기업의 순수한 자산입니다. 부채는 없으나 사무차장 채용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2012년에 비해 880,408원 줄었습니다.



2013년 사업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

■ 청소년 장학사업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담당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3년에는 27명(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5명)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장학사업 회계는 사무국 회계와 완전히 분리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과 예금이자 등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액 장학사업에만 사용합니다.

■ 경남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철회를 위한 활동

- 6월 24일 자로 가북초, 남하초, 주상초, 신원초, 고제초 등 5개 초등학교에 '2013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 변경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 전달. 주요 내용은 2014년부터 5개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이후 폐교 추진), 웅양중, 신원분교, 고제분교를 기숙형 중학교로 통합한다는 것.
- 전교조 거창지회(지회장 송준섭)가 제일 먼저 이 공문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항의 펼침막을 읍과 면 지역에 내걸고, 해당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하는거창과 공동으로 '1면 1개교 살리기 거창군대책위원회' 결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
- 7월 11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전교조 거창지회 면담. 이 자리에서 교육장은 "공문은 실수로 나간 것이며, 내가 있는 동안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전교조 거창지회는 "공문으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구.
- 7월 22일 거창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상 학교에 보냄. 주요 내용은 '적정 규모 학교 기준'과 '대상 학교'를 명시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해 전교조 거창지회는 '기준'과 '대상 학교'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처음 공문(6월 24일 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



- 7월 18일 고영진 도교육감, 거창문화원에서 열린 공감 토크 행사에서 “1면 1학교 원칙은 지키겠으나 분교장은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힘. 건물 밖에서 시위하던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 교사들이 “분교는 1개 교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대답을 얼버무림.
- 이후에도 도교육청이나 거창교육지원청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으며, 특히 1면 1교를 보장한다는 내용에는 분교장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1면 1교라고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7월 18일 현재 진주시 대평면 한평초등학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이미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 이곳도 지난 5월에는 주민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주민과 동문회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음.(거창에서도 남하초를 분교장 개편 또는 폐교 추진 중이었음 -7월 16일 교육장에게서 확인).
- 8월 12일 오후 2시 대책위와 이흥기 거창군수 면담. 학부모와 교사 12명 참석.

-대책위 측은 “도교육청과 거창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귀농전국 거창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분교장을 포함하는 1



면 1개교가 아니라 1면 1본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흥기 군수는 “교육문제에 효율성만 따지는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입장에서, 어느 방향이 학생들에게 유리한가 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 보임.

-.이에 송준섭 지회장은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분교장화 및 폐교 등만 있지 학교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그러한 조치들 이전에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에서도 이 노력에 동참,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8월 14일 고제면대책위, ‘고제 학교지키기 높은다리 작은 음악회’ 개최. 고제면민 약 70여 명 참가.
- 8월 1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 2차 가동보 추가 설치 제지를 위한 활동

- 10월 15일 오후 2시경, 포크레인으로 2교 위 수중낙차보를 제거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거창군에 항의. 현장에 불려나온 거창군 건설과장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고 이후에도 사전협의 없으면 장비를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약속.



- 10월 16일 오후 3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가동보 추가설치 반대를 위한 대책회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멸종위기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 서식 사실을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알리는 문제, Facebook 등 SN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 10월 18일 군 건설과장과 담당공무원 함께하는거창 방문해 함께하는거창, 푸른산네들, 거창YMCA 실무자들과 대화. 건설과장은 친수공간 확보와 농업용수 및 비상취수원 확보가 가동보 설치 목적이라고 밝힘. 시민단체 측은 가동보는 전문가들도 거부한 사안으로 단순히 물을 가두는 기능밖에 없고 정체된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 건설과장은 130억원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고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가동보를 세우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강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시민단체 측은 꼭 가동보를 세워야 한다면 1교와 2교 사이에는 절대 안되고 원상동 추평보로 옮겨줄 것을 요구.

- 10월 22일 건설과장 등 2차 방문. 시민단체 측은 얼룩새코미꾸리 서식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고 영호강을 수달의 서식지가 아니라 단순한 이동 경로라고 축소 기술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부실을 지적하며 가동보 반대 입장에는 전혀 변함없음을 밝힘. 건설과장은 지난 1차 방문 때 시민단체가 요구한 가동보의 추평보 이전에 대해 “제작사에 문의해 보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힘(6억원 들여 이미 제작 완료). 시민단체 측에서는 추가 가동보 설치는 결사 반대할 것이며, 군수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 건설과장은 시민단체 측에서 군수와 만나 대화의 자리를 가질 것을 권고했으나 시민단체 측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상태에서 군수를 만나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만날 수 있다”고 밝힘.
- 10월 24일~27일, 푸른산내들과 공동으로 거창군 통합축제 행사장에서 ‘국화 2만본 나눔잔치’ 진행. 이점도 공동대표가 제공한 신품종 국화 화분 2만 개에 “아름다운 영호강, 아이들이 뛰어놀 거창의 미래입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군민들에게 나눠 줌.



- 11월 5일 거창군에서 시민단체와 군수와의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옴. 긴급 대책회의 열고 “결과가 뻔하니 만날 필요 없다. 군의 통과의례식 행위, 명분쌓기용, 형식을 갖추기 위한 만남”이라는 결론 냄. 이 자리에서 국토부 및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압력을 가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가동보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과 확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 나옴.
- 11월 6일, 1교와 5교 사이 콘크리트 제방 걷어내고 폐석을 이용한 새로

운 제방 조성작업 시작. 함께하는거창과 푸른산내들, 거창YMCA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둔치 쪽을 더 깎아낼 것을 요구. 이에 2곳의 구간에 대해 둔치 쪽으로 최대 4.5M 깊이로 깎아 완만하게 만들 것을 약속.



- 11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 거창 방문. 현장에서 시민단체 실무자들과 대화.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후 서식 환경이 달라지면 수달 및 얼룩새코미꾸리가 살 수 없다고 지적. 담당자는 자기들로서는 가동보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은 없지만 전문가 통해 정밀조사를 하도록 군에 권고하겠다고 밝힘.
- 11월 19일 국토부 방문 관련 준비회의.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의견, 가동보의 위험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 설계변경 쪽으로 유도하도록 가닥 잡아야 한다는 의견 나옴.
- 11월 21일 진주MBC에서 현장 취재. 시민단체 측은 취재기자에게 “군에서 추진하는 가동보 설치 등의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름과 다르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지적. 관련 내용은 2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됨.
- 11월 22일 국토부 방문 관련 준비회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국토부 방문 외에도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및 대군민 서명운동 등 홍보전 등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 나옴.
- 12월 12~13일, 17~19일 거창군 으로부터 위천천 생태조사 용역 의뢰받은 한국생태기술환경연구소 조사팀 거창 방문해 조사 작업 벌임. 19일 거창교(1교) 밑, 18일 창동교(4교) 밑, 20일 아림교(5교) 밑에서 멸종위기 1급 얼룩새코미꾸리 1마리씩 포획, 서식사실 확인.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규탄 활동



- 7월 12일 거창읍로터리에서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희봉위생공사 노조, 거창적십자병원노조, 민예총거창지부, 전교조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거창지부, 민주당 산청·함양거창지역 위원회, 진보정의당 거창당원모임, 통합진보당 거창군위원회가 ‘국정원 국 헌문란 대선개입에 대한 거창 정당·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발표.
- 7월 13일부터 거창읍로터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문화제 개최. 주중에는 각 단체별로 오전과 오후 1인 피켓시위. 이후에도 촛불문화제 계속 이어 지다가 금요일로 요일을 변경해 단체피켓시위로 현재까지 진행 중.
- 8월 30일 거창읍로터리에서 천주교 마산교구 거창성당 주최로 ‘국정원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시국미사’ 개최.

-본당이 아닌 야외에서 열린 시국미사로는 전국 최초. 200여 명의 신자 및 군민들 참석.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미사 집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독점을 통해 불법적 정치개입과 인권유린을 저질러왔다”며, 이



제는 “불법·탈법·권위주의적 기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

■ 2013 거창NGO박람회

- 9월 16일 11:00~ 함께하는거창 회의실에서 1차 준비모임. 내용 및 일정 등 행사의 대략적인 윤곽 잡음.
- 9월 26일 11:00~ 2차 준비모임.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 논의.
- 10월 1일 11:00~ 3차 준비모임.



- 10월 7일 11:00~ 4차 준비모임. 행사 내용 및 일정 확정. 참가 단체별로 역할 분담해 행사 차질 없이 치르기로 결정.
- 10월 11일 14:00~ 거창읍로터리에서 참가 단체(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거창YMCA, 공무원노조 거창지부, 민예총 거창지부, 적십자병원 노동조합, 전교조 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 희봉위생공사 노동조합) 홍보 패널 전시 및 체험행사(키보드 자판 및 마름, 호두 등을 이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 10월 11일 19:30~ 거창읍로터리에서 작은음악회. 권문상(플루트), 신용남(색소폰), 김하주(기타), 조경주이정애(노래) 공연으로 꾸러짐. 참가자들은 “피자+치킨=NGO” 행사 통해 협찬 받은 피자와 치킨 나눠 먹으며 연주 감상.
- 10월 12일 14:00~ 대동주공APT 앞 강변둔치에서 거창시민사회단체 명랑운동회 개최. 70여 명의 NGO 회원 참가. 족구, 단체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행사 진행.
- 10월 17일 19:30~ 거창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성염 전 서강대 교수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실, NGO”라는 주제로 초청강연. 전 교황청 대사를 역임한 성 교수는 강연을 통해 NGO의 세 가지 키워드로 보조성, 참여성, 연대성을 제시한 후 “사회 다원주의의 가치를 창출하는 NGO, 참여민주주의의 시대에 맞게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NGO, 경쟁만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NGO의 역할”을 당부.

- 10월 18일 19:30~ 거창읍로터리에서 화제의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100여 명의 NGO 회원 및 군민들 참석.
- 10월 29일 11:00~ 함께하는거창 사무실에서 결산평가회의.

■ 북상 황점 농가주택 건립문제

- 2012년 6월 성낙경 씨가 건축신고한 산채직판장이 주민반대로 자진철회되자 작년에 농가주택으로 형식을 바꿔 건축을 재신청함으로써 사태 발단.
- 10월 2일 15:00~ 현장에서 거창군경관심의위원회 열림. 함께하는거창과 푸른산내들, 현장에 미리 도착해 농가주택 건축 계획에 반대하는 현수막 내걸고 심의회 참관. 이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은 “이런 좋은 경관에다 농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자리에 농가주택 40평은 주거 용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심의회에서 불가 판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 심의회 마친 후 성낙경 씨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반대의사 굽히지 않음.
- 10월 14일 열린 심의회위원회에서 6:1로 부결됨으로써 농가주택 건축 완전 무산됨. 심의회 전 황점 주민들 군수 면담. 애초부터 이 사업은 유력 지역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음.



■ 고 이봉근 농민회장 1주기 추모식

- 11월 4일 고제면 원기마을 묘소에서.
-지인 등 80여 명 참석. 추모시와 추모노래, 살풀이춤, 헌화 및 분향.
-추모식 후 쌍봉초에서 점심식사



■ **함께하는거창 2003 회원 워크숍**

-2월 21일 저녁 행동하는언론 소비자연대 거창지부 사무실에서 열림. 회원 20여 명 참석.

-이점도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대중성 확대'라는 주제로, 유수상 운영위원이 '함께하는



거창,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우병권 회원이 '울산시민연대의 역사와 활동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

-이어진 회원토론에서는 대중성 확보 문제, 회원 간 소통 문제를 중점으로 대화 나눔.

-새로운 소모임 창립을 통해 소모임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의견, 회원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회원 참여를 유도하자는 의견, 카톡과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소통의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의견 나옴.

-이외에도 올바른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부정적인 단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자는 의견, 타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과부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데 있어 너무 소극적인 부분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 **신용균 전 상임대표 강연회**

-3월 1일 거창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3.1운동과 한국의 민족주의' 주제로 강연.

■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최언혁 초청강연회**

-4월 9일 19:00 거창읍사무소 3층 회의실

-함께하는거창과 거창군여성회 공동주최, 100인북클럽 주관

-80여 명 참석.

■ **‘보수의 아이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초청강연**

- 6월 4일 19:30, 거창읍사무소 3층 회의실.
- 주제: ‘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 80여 명 참석.

■ **김경욱 교수 초청강연회**

- 11월 22일 19:3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소강당.
- 주제: ‘4대강식 하천개발의 문제점과 영호강 살리기’
- 80여 명 참석.

■ **‘지슬’ 영화 공동제상영**

- 4월 16일 19:30, 거창종합사회복지관 2층 소강당
- 관람인원 약 60명

■ **‘위 켜 두 땀’ 상영**

- 6월 13일 19:00, 거창문화원 상설미홀.
- 60여 명 참석.

■ **고제댐 수로공사 현장답사**

- 10월 5일 함께하는거창(최성식, 최용준)과 푸른산내들(이순정) 고제댐 수로공사 현장방문. 시작 당시부터 예산낭비 및 환경파괴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업임. 공사중단 요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음. 복원방안 고민 필요.

■ **함께하는거창 기타강과 개설 및 작은음악회 개최**

- 4~7월 1기 12명, 9~11월 2기(초급 9명<수>, 중급 10명<목>) 운영
- 11월 14일 중급반 기타수업일에 황수하, 조정곤, 김민엽, 김하주로 구성된 연주팀으로 작은음악회 개최. 12명 참석.



■ 2013년 감사

-1월 7일 15:00~ 정연탁, 8일 19:00~ 이상황

■ 2013 회원 송년의 밤

-12월 4일 18:00~ 콘서트하우스In
-60여 명 참석. 시작 시간을 저녁 8시에서 6시로 당겨 저녁식사 제공.
-준비위원장 권문상. 세바퀴에서 뒷풀이.



■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버전 오픈

- 기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접속가능. 함께하는거창 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 회원들 사이의 소통에도 도움.

■ 지역 기관, 단체 회의 및 행사 참석

- 1월 14일 급식가격결정협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2월 8일 거창읍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2월 13일 급식가격결정협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3월 6일 거창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3월 12일 거창군급식가격결정협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4월 4일 전국공무원노조 거창군지부 제7대 출범식(이점도 공동대표, 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4월 6일 거창군급식가격결정협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4월 24일 적십자병원노조 출범식(이성호 공동대표 참석)
- 5월 8일 거창군급식가격결정협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6월 12일 거창군급식가격결정협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6월 26일 군계획위원회(김기오 작은권리찾기모임 대표 참석)
- 8월 12일 학교급식가격결정심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9월 8일 학교급식가격결정심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 9월 26일 군계획위원회(김기오 회원 참석), 거창군 통합축제 추진위원회(이점도 공동대표 참석)
- 11월 12일 학교급식가격결정심의회(최성식 사무국장 참석)

회원 소모임 활동

푸른 숲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안내(회장: 이기식, 산행대장: 백철우, 총무: 조재필)

■ 제152회 땅실봉

- 1.날짜 : 2013년 1월 5일
- 2.참가자 : 이기식, 이강철, 백철우, 김영수, 신승열, 서대림



■ 제153회 아홉산

- 1.날짜 : 1월 19일
- 2.참가자 : 이기식, 김영수, 송철주, 김학균, 백철우



■ 제154회 편산

- 1.날짜 : 2월 17일
- 2.참가자 : 김영수, 백철우, 이창희, 김강철, 서대림, 최성식, 송철주

■ 제155회 땅실봉

- 1.날짜 : 2월 23일
- 2.참가자 : 김영수, 조재필, 신용균

■ 제156회 고흥 팔영산

- 1.날짜 : 3월 3일
- 2.참가자 : 김영수, 신용균, 이창희, 송철주



■ 제157회 외상봉

- 1.날짜 : 3월 9일
- 2.참가자 : 김영수, 이기식, 이영자, 백철우, 최성식

■ 제158회 천관산

- 1.날짜 : 3월 17일
- 2.참가자 : 김영수, 이기식, 이영자, 백철우, 서대림, 최성식 외 2명

■ 제159회 보해산

- 1.날짜 : 4월 13일

■ 제160회 아홉산

- 1.날짜 : 4월 28일

■ 제161회 가야산 만물상

- 1.날짜 : 6월 6일
2. 참가자 : 윤 철, 김강철, 하귀영, 백철우
3. 코스 : 백운동 주차장 → 만물상 → 서성재 → 백운동 주차장
4. 산행시간 : 3시간

■ 회원 반기

- 1.날짜 : 6월 26일
- 2.장소 : 통영수산

■ 제162회 가야산 만물상

- 1.날짜 : 6월 29일

작은권리찾기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김기오, 총무: 최광재)

■ 1월 28일, 광안리해물탕

- 참가자 : 김기오, 박창구, 최광재, 김도연, 이점도, 장상철, 장병욱, 최성식
- 2013년 활동 방안 논의

■ 2월 25일, 대성복집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김도연, 이점도, 장상철, 변범식, 최성식
-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례 모으기 및 신문광고 준비 등 논의

■ 3월 25일, 광안리해물탕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김도연, 이점도, 박창구, 박고희, 변범식, 이수구, 최성식
- 주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례 모으기 홍보방법 등 논의
- 민원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 및 구체적인 준비 논의

■ 4월 29일,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김도연, 이점도, 박고희, 변범식, 이수구, 최성식
- 변범식 회원 발제로 주민불편사항, 잃어버린 권리 찾기 등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 홍보키로 함
- 집행부, 홍보분과, 관리분과, 실행분과로 나누어 회원별 역할 분담키로 함.
- 5월 중 세부계획 완성해 6월부터 시행키로 함.

■ 5월 27일,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김도연, 이점도, 변범식, 이수구, 박선애, 장병욱, 최성식
- 홍보내용(보도자료, 의견 접수 대장 등) 1차 검토



■ 5월 30일, 광안리해물탕

- 참가자 : 김기오, 장병욱, 김도연, 이수구, 이점도, 변범식, 최광재, 최성식
- 보도자료 등 내용 2차 검토. 6월 10일~14일 중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시작기로.

■ 6월 24일, 건계정식당

- 참가자 : 김기오, 김도연, 최광재, 이점도, 장병욱, 박선애, 장병욱, 김강철, 변범식
- ‘찾아라! 작은권리!’ 현수막 디자인 도착하면 보도자료 배포 등 공식화
- 디자인 시안은 장병욱 회원에게 전달. 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 기관단체 등에 관련 내용 우편 발송해 홍보기로 함.

■ 7월 29일, 건계정식당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김도연, 장병욱, 김하주, 김강철, 하귀영, 이점도, 최성식, 박창구
- ‘찾아라!작은권리!’ 홍보포스터, 안내문을 함께하는거창 회원과 이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각 기관단체 등에 601통 발송.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아림신문, 서경신문, 경남매일, 경남신문 보도. 7월 22일 진주MBC 라디오 ‘오늘의 경남’에 최성식 사무국장 인터뷰. 현수막 3장 게시.
- 작은권리찾기 회원들이 인쇄비 등 비용 부담, 안내문 발송 비용은 사무국에서 처리

■ 8월 22일, 광안리해물탕

- 참가자 : 김기오, 박창구, 최광재, 이점도, 하귀영, 김강철, 변범식, 김도연,

박선애, 김하주, 장상철, 김종철(정연탁, 박보건)

-‘찾아라!작은권리!’ 홍보 포스터를 각 단체에 부착해 줄 것을 부탁.

-작은권리 회원끼리 SNS 통한 소통 활성화 논의.

■ 9월 30일, 광안리해물탕

-참가자 : 김기오, 박창구, 최광재, 이점도, 김강철, 변범식, 김하주, 장병욱, 조인제, 박고희, 신용민, 이수구, 최성식(이수미)

-‘찾아라!작은권리!’ 접수된 안건 내용 공유. 정리해서 보도자료 내고, 군에 건의키로 함.

■ 10월 29일, 대성복집

-참가자 : 김기오, 김도연, 박창구, 최광재, 이점도, 장상철, 변범식, 김하주, 조인제, 박고희, 최성식, (최선숙, 배인주)

-‘찾아라!작은권리!’ 1차 접수 빨리 정리 후 군에 건의, 보도자료 배포.

-2차 홍보 준비

■ 11월 25일, 광안리해물탕 / 접수분과 모임

-참가자 : 변범식, 최성식, 김하주

-접수된 1차 안건 1차 정리

■ 11월 26일, 광안리해물탕

-참가자 : 김기오, 김도연, 최광재, 이점도, 변범식, 장병욱, 김종철, 김하주, 최성식, (어인수)

-접수된 안건에 대해 단순 민원제기, 현장확인 등 절차 거친 후 확정, 중장기 검토 과제 등으로 분류

-실행분과, 12월 2일 로터리~하루방 제과 구간 인도 보도블럭 상태 확인: 김도연, 이점도, 김하주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4년 사업 계획

함께하는거창이 2014년 해야 할 일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거창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회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보태주시십시오.

■ 사무국

- 사무차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 기본 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거창이 해야 할 일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잘 챙겨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홍보

- 회원들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소식지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을 풍부하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 함께하는거창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 회원 활동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큰 행사보다는 작더라도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 모임에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 교육연구소, 장학사업

- 장학사업은 거창하진 않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와 입시교육 위주의 고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적 지원 외에도 아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민하겠습니다.

■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

- 예산감시 활동, 위천천 생태하천사업, 급식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같은 문제를 꾸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 6·4지방선거에 유권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무국 중심이 아니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운동 등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

- 시민사회단체 체육대회, NGO박람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사 위주의 일회성 연대를 넘어 일상적 사업 고민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

1.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32,000,000	인 건 비	급 여	14,400,000
	후원금(사)	1,560,000		상 여 금	600,000
	후원금(금)	3,360,000		퇴직적립금	1,200,000
기타수입	사업 수입	0		복리후생비	2,400,000
	이자수익	5,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500,000
	잡 수 입	2,568,000		사무용품비	200,000
	전년도 이월금	4,395,929		세금과공과금	1,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700,000
				통 신 비	60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1,500,000
				발 송 비	1,000,000
				분 담 금	5,000,000
				사 업 비	6,000,000
				회원활동비	1,500,000
				회 의 비	1,000,000
				출장연수비	300,000
				잡 비	1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2,087,929
수입합계		43,888,929	지출합계		43,888,929

2장학사업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22,000,000	장 학 금	22,000,000
이자수익	1,500	부대비용	10,000
전년도 이월금	979,013	세금과 공과금	1,000
-		예 비 비	969,513
수입합계	22,980,513	지출합계	22,980,513

주1) 예산(안)은 2014년 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 실제 함께하는거창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3년에 비해 조금 줄었습니다. 전교조 거창지회가 독립해 나가면서 사무실 공동운영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3) 일반회계 중 후원금(금)은 교육연구소 설립을 위한 후원금을 전교조 거창지회가 설립·운영하는 인문학서점 “숲”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연구소 설립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연구소 설립 계획을 인문학서점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출에서는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
과

돈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우선해 왔던 서부경남지역의 좋은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기정을 반대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 ▲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 신종플루 등 전염병에 대한 적극적 대처 ▲ 무료진료 및 가정간호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펼치며 연간 20여만 명의 지역주민들과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입니다.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평균 4만 5천원이나 저렴한 입원진료비를 받아오면서 매년 3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지역사회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 왔던 병원! 소위 ‘돈이 안 되서’ 기피하는 환자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느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적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도 값싸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해왔던 우리 지역 좋은 공공병원! 이것이 경상남도가 적자병원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폐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참 모습입니다.

더욱 현대화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며 진주의료원의 신축이전을 추진한지 이제 불과 5년, 그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두고 마치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 마냥 몰아세우면서 당장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상남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태도도, 자세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면서 저렴한 진료비, 반드시 필요한 의료공백을 메워왔던 진주의료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원해야 한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경영부실과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공공병원을 도민들의 필요가 아니라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수익성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2013. 3. 22.

함께하는거창, 푸른 산내들, 거창군여성농민회, 전농 거창군농민회, 공무원노조 거창지부, 일반노조 거창군지회, 일반노조 거창희봉공사지회, 일반노조 거창휴게소지회, 전교조 거창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거창지회, 보건의료노조 거창적십자병원지회, 사회보험경남지회 거창분회, 국민연금거창분회

100인 book club 열 한 번째 강연

복지의 최전선 스웨덴에서 만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삶
생생한 언어로 듣다!



최연혁 초청강연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25년에 이르는 스웨덴 생활을 통해 쌓아온 그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은 한국에서 복지제도를 연구하려는 정부기관 및 정책연구에도 중요한 참조가 되고 있다. 그는 진정한 복지란 몇 십 년 후를 내다보고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비판적 수용, 한국의 현실에 맞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때 : 4월 9일 (화) 7시

곳 : 거창읍사무소 3층

주최 : 거창군 여성회 / 함께 하는 거창

주관 : 100인 book club (문의 : 010-7388-9114)



1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춘자의 웃음
상표의 달리기
만철이의 사랑이 멈추던 날
운명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뜨거운 감자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2

2013.3 대한민국의 봉인된 시간이 열립니다!

4월 16일(화) 오후7:30 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2층)
관람료 5,000원 15세 이상 관람 문의:함께하는거창 ☎ 942-1117

거창교육지원청, 폐쇄적 밀실행정으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

거창교육지원청은 중학교 학생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중학교 배정 방식을 무지원 추첨제(강제배정)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선지원 후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통학거리나 학생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배정을 하다 보니 적잖은 불만이 쌓여 왔고, 등교 시간이면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한 자동차의 증가로 등굣길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학교 배정 방식은 교육 당국의 편리함보다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배정 방식을 결정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결정 결과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과 결정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거창교육지원청은 5월 23일 중학교 배정 민원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학부모 대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협의회는 방청조차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비밀회의다. 이것은 중학교 배정 방식 결정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의지가 없으며, 형식적인 협의회 개최로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거창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협의회에 참석하는 학부모 대표는 각 학교에서 임의로 추천하도록 해 해당 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표할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창교육지원청은 폐쇄적인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학교 배정 방식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5. 23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표창원 초청강연



강사 표창원

-경찰대 졸
-범죄심리학자
-전)경찰대 교수
-저서:보수의 품격 등 다수

때 : 6월 4일(화) 7:30

곳 : 거창읍사무소 3층

주최: 함께하는 거창 / 100인 book club

문의 (055) 942-1117

국정원 국헌문란 대선개입에 대한 거창 정당·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심각한 범죄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일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박원순 제압문건과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에서 드러났듯 일상적으로 정치공작을 펼쳤고, 급기야 지난 대선에서는 댓글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국정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자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는 헛소리를 핑계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를 종합해 보면, 국정원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과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국헌 문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 사초를 공개하고, 나라의 근본을 훼손한 정치모리배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겸허히 살펴보길 바란다.

경찰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촛불집회 참석자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의 정당성 없는 과잉수사는 결국 국정원의 범죄를 감싸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는 조중동과 종편 등 일부 언론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국정

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몰타기 보도로 일관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으로 최대의 덕을 본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더 이상 ‘셀프 개혁’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한다.

거창의 정당·시민사회단체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행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헌정질서 유린과 새누리당의 몰타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

-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을 즉각 해체하라!

-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한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등 주범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공개 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 처

벌하라!


- 검찰과 경찰은 권력에 줄서지 말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당당히 임하라.

- 조중동과 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언론은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언론의 양심을 지켜라.

2013. 7. 12

거창군 농민회, 거창군 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민예총 거창지부, 전교조 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 민주당 산청·함양·거창지역위원회, 진보정의당 거창 당원 모임, 통합진보당 거창군위원회, 희봉위생공사노조

찾아라! 작은권리!

 http://gcngo.org	함께하는 거창 보도 자료 (http://gcngo.org)	
보도협조일 2013. 7. 19.	연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총 매 수 2쪽		

‘함께하는거창’,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작 당신이 잃어버린 삶은 작은 권리 찾아보세요

거창의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거창’에서 시민의 작은권리 찾기 운동을 시작한다. ‘함께하는거창’의 회원활동 모임인 작은권리찾기모임은 “찾아라! 작은 권리!”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바탕으로 거창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권리 찾아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작은권리찾기모임은 2005년부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적극적인 권리까지 고민하며 그 해결 방법을 고민해온 모임이다. 모임에 따르면, 작은권리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 불편했지만 귀찮아서 지나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속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보기에 조금만 개선하면 모두가 편리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동안 작은권리찾기모임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모임은 향교 앞 충혼탑과 그 인근의 죽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공원 옆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예산확대로 제대로 된 공원이 되도록 적극 참여했고, 세무서 옆길의 도로주차장에 튀어나온 전봇대를 옮겨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며, 거창읍내 모든 마트를 대상으로 빈병수거 날짜와 빈병 구매가격을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알렸다. 또 갑자기 시행되어 시내 교통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고를 일으켰던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를 개선하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거창군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 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 모니터링과 안전시설 확대 설치 건의, 훼손되어가는 거열산성 등산로를 대체할 새로운 등산로를 찾고자 망실봉과 금귀봉 등산로를 조사했으며, 보행권 확보를 위해 모든 회원이 거창읍 곳곳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침묵하는 다수 군민들의 소리를 담아내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주민참여 운동이다. 작은 힘이지만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거창 지역의 미래를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화시키고자 하며, 아울러 계속 같이 활동할 참여자를 찾는 것도 이번 운동의 목표라고 한다.

찾고자 하는 작은권리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055-942-1117), 우편(670-808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인터넷(<http://www.gcngo.org/>)으로 접수할 수 있다.



**찾아라!
작은 권리!**

당신이 잃어버린 권리,
숨어 있는 작은 권리를 찾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무심코 지나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조금만 개선하면 모두가 편리해지는 것들

**함께하는거창
작은권리찾기 운동 시작**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우리 거창의 미래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942-1117
팩스 943-1170
전자우편 cham1117@daum.net
인터넷 <http://gcngo.org>
우편 (670-808)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길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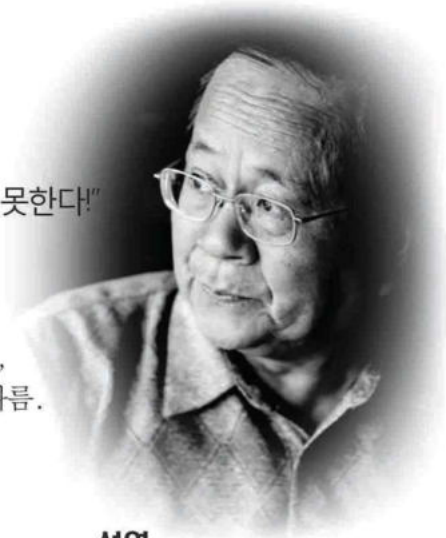
[2013 거창NGO박람회 초청강연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실, NGO

"정의를 갖추지 못하면
공권력은 사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평화는 오로지 정의의 열매이며,
정의 없는 질서는 감옥살이일 따름.
정의로운 세상,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NGO의 역할을 듣는다.



성엄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
전) 교황청 대사
전) 한국외대, 서강대 교수

-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오후 7:30
- 장 소: 거창읍사무소 3층 강당
- 주 최: 거창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
- 문 의: 942-1117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최고 화제작
〈부러진 화살〉 정지영 제작

최아함
교류제트

2013년 9월, 대한민국을 깨우는 용기있는 작품이 온다

제공/배급 (주)아우라픽처스 제작 정지영 감독 박승우 프로듀서 최철현 대리인 강신일

‘거창의 4대강사업’ 굳이 해야 하나?

 http://gcngo.org	함께하는 거창 보도 자료 (http://gcngo.org)
보도협조일 2013. 10. 18.	연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총 매 수 3쪽	

‘거창의 4대강사업’ 굳이 해야 하나?

중앙교(2교) 위 2차 가동보 설치 추진, 시민단체 극력 반대 1차 가동보 설치 이후 문제점 속속 드러나

거창군이 13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중 큰 논란이 일었던 추가 가동보 설치와 관련해 지역 내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거창군은 이 사업과 관련 올해 1차로 거창시외버스터미널 밑 사례비보에 가동보를 설치한 상태이며, 앞으로 중앙교(2교) 위와 거창교(1교) 아래 두 곳에 추가로 가동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가동보 설치 이후 드러난 온갖 문제점으로 인해 추가 가동보 설치 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10월 15일 2차 가동보 설치를 위해 포크레인으 로 현장 강바닥을 긁어내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극력 반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온 거창군 건설과장에게 “1차 가동보 설치 이후 모든 관련 사업은 협의를 통해 해 나가기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기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딴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건설과장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겠으며, 향후 재개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가동보 설치사업은 지역 시민단체 및 주민들도 극구 반대한 사업이며, 심지어 지난 2011년 11월 8일 열렸던 주민정책토론회에서 거창군 측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조차 그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도 무리하게 강행했다. 게다가 강 지형과 유속, 물높이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3개의 가동보 모두를 국내의 수많은 특허보유업체를 제쳐두고 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1차 가동보 설치 이후 나타난 여러 파괴적인 영향들인데,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이 수질 악화 등 자연환경 파괴이다. 정상적으로 흐르던 강물이 가동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지면 보 상류 쪽 강바닥에는 심한 갈변층이 형성되어 청정 강의 이미지가 완전 파괴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1차 가동보 남단 부분은 선착장 같은 인공구조물로 인해 강의 자연미가 완전 파괴되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동보를 세우거나 높이면 수량의 변동뿐만 아니라 유속이 급격하게 변해 가동보 주위에는 물고기 등 수중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생명이 없는 죽음의 강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거창위천천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와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강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친수공간 확보’인데도 역설적으로 깊은 수심으로 인해 올 여름 보 위쪽에서는 단 한 명도 수영을 즐기지 못했고, 겨울에는 썰매를 탈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가동보 자체가 기계시설이라 위험성은 항상 남아 있다. 즉 거창군의 계획대로 연이어 세 개의 가동보를 설치했을 때 그 중 하

나라도 고장나면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는 재앙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의 온갖 폐해들이 현재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4대강사업의 축소판이라 할 사업이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 거창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강은 군수 개인이 조작할 수 있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6만 군민의 강이자 앞으로 후손들에게 소중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살아 있는 강을 죽은 강으로 만들 2, 3차 가동보는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초청강연회>

4대강식 하천개발의 문제점과 영호강 살리기

생태계 파괴!
예산낭비!
재난위험 증가!

‘거창위천 생태하천 사업’의
검은 속살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아 갑니다.



김 정 욱

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 명예회장
물포럼코리아 이사장
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장



- 시 간 / 2013년 11월 22일(금) 오후7:30
- 장 소 / 거창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2층)

-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위천천 만들기 주민대책위원회 -

보도자료	생태계 훼손논란 제2가동보 공사 중단, 생태하천사업 졸속 추진 드러나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자연과사람이 어울리는 위천천 만들기 주민대책위원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전화 942-1117)	

생태계 훼손논란 제2가동보 공사 중단 **멸종위기 1급 얼룩새코미꾸리 시민단체 영호강에 서식확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정밀생태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요구**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두 번째 가동보 설치공사가 심각한 생태계 훼손 우려로 중단되었다. 위천천에서 멸종위기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 서식이 확인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정밀생태조사와 보전대책 수립을 거창군에 요구했다.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위천천만들기 주민대책위’는 가동보 설치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보전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영호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므로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23일 대책위 관계자들이 중앙교(2교) 부근에서 제2 가동보 설치를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는 포크레인을 막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어 강력히 항의하자 거창군은 부랴부랴 공사를 중단했다. 대책위는 가동보 설치공사 현장에 멸종위기 1급 희귀 어류인 얼룩새코미꾸리의 서식 사실을 확인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서식지보호를 요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1월 7일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곧바로 공사 중단 후 정밀생태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을 거

창군에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대책위는 위천천에 3개의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2011년 기본 설계 검토단계에서부터 하천의 다양한 지형과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해 결국 위천천을 인공어항으로 만들 것이라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얼룩새코미꾸리의 서식확인 등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 기본계획 당시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언급조차 없었던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점, 멸종위기 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의 서식실태에 대한 왜곡 축소 조사를 토대로 계획된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위천천에 얼룩새코미꾸리의 서식 사실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로 입증되어 거창군에 정밀생태조사와 보전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였고, 이 같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구간의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차후 실시될 정밀생태조사에 지역 시민단체들의 입회와 참여를 권고하였다고 한다.

한편 하천변식생대를 과도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앙교 하류 모래톱을 제거하는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얼룩새코미꾸리의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하상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도록 거창군에 조치하였다고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거창군은 이미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 사실을 시민단체와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서식지 파괴를 동반하는 하상정비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서식지가 훼손될 시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가동보 설치 현장〉



〈퇴적물과 악취로 이용 불가능한 사례비보 상류 물빛 쉼터〉



〈물빛 쉼터 퇴적물-시외버스터미널 앞〉



〈가동보 공사 현장 수달 분면〉

함께하는 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 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 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 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 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하는 거장**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하는 거장**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하는 거장**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하는 거장**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하는 거장**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하는 거장**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하는 거장**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의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항**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개최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온라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 (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개항**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아는 세상**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아는 세상**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임계**는 **계장**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임계**는 **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임계**는 **계장**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9조(수입)

1. **함께하는 계정**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장학사업 특별회계(2009. 1. 20 신설)

제31조(장학사업의 목적) **함께하는 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입) **함께하는 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 본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 또는 기관,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
3.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지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후원자 모임에서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를 정한다. 단, 후원자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사무) 장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자 모임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에 간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정관과 내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

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 개혁~~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 개혁~~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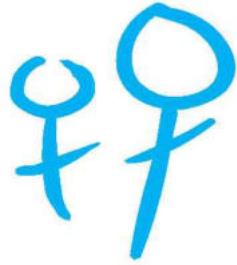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go.org